

2011년 둔황, IDP 전체 워크숍 개최

수잔 윗필드 (IDP 대표)

지난 2011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간쑤성 둔황연구원에서 IDP 협력기관 전체 워크숍이 열렸다. IDP SEOUL에서는 민족문화연구원 최용철 원장과 홍윤희 IDP SEOUL 간사, 심태식 국제협력팀장이 참가하여 발표, 토론을 통해 각 센터 대표들과 IDP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잔 윗필드 대표가 보내온 회의록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오늘날의 IDP는 10개 기관, 8개의 센터가 협력하여 각기 서버와 현지어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국제협력프로젝트이다. 그러나 IDP의 기술적 인프라는 15년 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10년이 다 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요 점검 및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DP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IDP는 현재 둔황 사본뿐만 아니라 모든 고고 유물 및 동부 실크로드에 관한 보존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컨대 실크로드에 관련 있는 인도 북부 및 이란의 자료들도 IDP에서 디지털화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협력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기관 대 기관, 또는 IDP 유물보존 회의를 통해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의 중요성과 복잡성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 모임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둔황연구원이 회의를 주관하였고, 비자 문제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IDP 러시아를 제외한 7개 IDP 센터의 대표단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개회

개회식에서는 왕취동(王旭東) 둔황연구원 상무부원장, 뤼화칭(羅華慶) 둔황연구원 부원장과 수잔 윗필드(Susan Whitfield) IDP 대표의 환영사가 있었다.

IDP의 범위와 내용

첫째 날은 세계 각지의 IDP 센터에서 온 대표단이 IDP의 범위에 대한 견해와 각 센터의 작업에 대하여 간략히 발표하였다. 둘째 날은 이에 관한 토론을 가졌는데, 최용철 교수가 국제 '둔황'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변경하기에는 현재 명칭이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다는 지적과, 대체로 IDP라는 축약형이 사용되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언급도 있었다. 둔황 외부 지역 자료들로 구성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IDP 독일의 데스몬드 더킨 마이스터에른스트(Desmond Durkin Meisterernst)는 투루판박물관장 리샤오(李肖)



IDP SEOUL NEWS

No.03

발행인_ 최용철

편집인_ 홍윤희

발행일_ 2012년 1월 31일

발행처_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IDP SEOUL

주소_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홈페이지_ <http://riks.korea.ac.kr>

E-mail_ idp.seoul@gmail.com

전화_ 02-3290-2494

팩스_ 02-3290-2596



이 인쇄물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KRF-2007-361-AL0013)

등의 지적을 언급하며, 투루판과 같은 기타 주요 실크로드 유적지와 둔황 간에 풍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에 다른 컬렉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둔황연구원의 장위안린(張元林)도 IDP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므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는 자료의 한도를 정하기 위한 학술적인 초점이 필요하며, 실크로드 동부 또는 중앙아시아까지의 범위가 적합하다는 합의가 있었다. IDP 스웨덴 대표 비르깃 쉴테르(Birgit Schlyter)가 제기한 지역 명칭의 정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정의가 화두가 되었다. ‘실크로드’는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고 시간적 상한선이 없다는 데에 이점이 있다. 하지만 외부 지역의 자료들도 실크로드 자료와 연계되어 있다면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 마더(馬德)는 실크로드와 연결된 자료로서 중앙 티베트나 인도의 사본을 예로 들었다. 홍윤희는 특히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실크로드의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보존 기록을 포함시키는 것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고고학적 컬렉션의 핵심 작업인 보존처리, 디지털화 및 목록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여러 연사들은 비교적 최근의 발굴품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에 발굴된 자료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샤오와 신장문물고고연구소 부소장 카심 안와르(Khasim Anwar)는 발표를 통해 토욕 및 신장의 기타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굴된 풍부한 유물들을 보여주었다.

IDP 베이징의 류보(劉波)는 데이터베이스가 당초 책자본이나 보존 기록보다는, 주로 사본 자료나 사진 자료, 낱장의 문서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는 논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IDP가 이러한 것들을 PDF나 다른 포맷으로 웹사이트의



IDP워크숍에서 발표중인 최용철 원장

‘연구’ 항목 아래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잔 힛필드는 이것이 애초의 취지임에 동의하였지만, 그 후로 IDP가 서류, 지도, 사진 등의 보존 기록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과 벽화에 대한 목록화 및 메타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하여 발전해 왔음을 지적했다. 현재 IDP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로 된 PDF파일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학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회의는 보존 기록 관련 자료의 포함과 더불어, 린스텐(林世田, IDP Beijing)이 언급하였듯 리샤오와 카심 안와르의 발표에서 나타난 근대 발굴 사진의 포함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바바라 마이스터에른스트(Barbara Meisterernst)는 학계 및 학자 등 IDP 핵심 사용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자료의 접근성 및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적절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위안린은 같은 맥락에서 연구 정황에 뒤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양슈칭(楊秀淸)도 이에 동의하며,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초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참고문헌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연구

다음 세션은 과학적 인문학 연구에 대한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사카모토 쇼지(Sakamoto Shouji)와 아그네슈카 헬만-바즈니(Agnieszka Helman-Wazny)는 중국 둔황권자의 종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각각 다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들의 통합된 데이터는, 염료 분석을 위한 라만 분광법 등 기존 연구 및 방법론을 통한 자료들과 더불어



IDP워크숍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어 연구자 및 사람들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쓰이는 추가 데이터 군의 토대를 형성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IDP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정보가 추가되고 있으며 추후 모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마더와 바바라 마이스터에른스트의 발표는 목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마더는 간쑤성 출토 티베트어 사본에 대한 작업에 관하여 발표했고 마이스터에른스트는 베를린에 있는 산스크리트 잔편들의 목록을 IDP에 입력하는 것에 관해 발표하였다. 목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특히 중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목록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탈리 모네(Natalie Monnet)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수잔 횃필드는 현재 이 부분은 각 기관들이 충분한 자원이나 전문성을 갖지 못한 만큼, IDP가 이용자 그룹에서 도움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기술

빅 스위트(Vic Swift)는 IDP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 시스템, 단기적인 필요 사항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가능성을 비롯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에 관해 발표하였다. 데스몬드 더킨 마이스터에른스트는 오픈 소스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축이었으며, 또한 그의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IDP로의 합병 가능성에 관해 발표하였다. 리우 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데이터 추출에 문제는 없을지를 물었고, 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카다 요시히로(Okada Yoshihiro)는 IDP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시간 지도(Time Map)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몇 가지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빅 스위트는 웹사이트 CMS가 목록화 및 기타 항목 메타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들어가야 할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을 이끌었다. 성옌하이(盛龔海)와 튀화칭 둘 다 데이터의 목록화에 관한 논의를 제기했고, 현재의 XML 사용에 관한 짧은 토론이 있었다.

현지화

빅 스위트가 현지화에 관한 논의 과제들을 발표했고, 나탈리 모네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녀는 다국어 원칙이 필수불가결하며 1993년 선택한 현행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당시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동의하였다. 또한 그녀는 목록의 다국어 접근성에 관한 논의를 언급하며,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목록에의 접근성을 위해 두 가지 언어로 제출하게 한

사례를 들었으나, IDP에서 실현하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한 소요 시간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스위트프트는 협력기관이 정기적으로 틈틈이 다국어 용어표 등의 영역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현지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수잔 횃필드는 목록 및 메타 데이터의 번역은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이 가장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소통과 협력

홍윤희는 IDP 웹사이트에서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방식의 직접 교류의 필요성을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논제들을 거론하였다. 빅 스위트프트는 기존에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시도해 봤으나 방화벽으로 인해 막히거나 다른 국가의 협력기관이 사용할 수 없었고 언급하며, 홍윤희가 적절한 시스템을 찾아내어 협력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IDP 데이터베이스의 이메일 리스트(학자 관련 표)에 모든 협력기관의 연락처 상세 내역이 올라와 있음을 알렸다. 홍윤희는 또한 IDP 학술 논문 게재 및 특별 강의 개최 등, 학술 교류 증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기타

그 외의 논제들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참석자들은 협력기관 간의 모임이 매우 유용한 포럼이었으며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의견을 같이했고, 향후 격년 개최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있었다. 또한 학술적, 기술적 차원에서 소규모 자문위원단 구성 제안에 동의하였다.

종합 정리

수잔 횃필드는 다 같이 모여 중요한 논제들을 의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준 둔황 연구원에 감사를 표하며 간단히 회의를 정리하였고, 이 자리는 앞으로의 논의의 발판이자 시작임을 강조하였다. 세션이 끝난 후에 각 대표단들은 둔황연구원이 안내한 막고굴 및 옥문관, 유림굴, 쇠양성 등 현지 유적들로의 답사를 함께 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서로 좀 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몽골 답사중인 필자

실크로드, 유목민 그리고 몽골 제국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실크로드, 동서 세계를 이어주는 교역로다. 남북 간에도 이런 교역로가 있었다. 이 길을 통하여 사람과 물자가 오고갔다. 중국 사람들은 장건이 이 길을 개척했다고들 한다. 이전에도 교류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크로드 교역에서 유목민들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한나라 때 흉노, 수와 당나라 때 돌궐과 위구르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몽골 제국 시대에는 몽골인들이 그 주역이다. 이들은 서역에 산재한 오아시스 정주민들의 동업자 또는 무역로 보호자로서 교역로를 장악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육상과 해상을 막론하고 몽골 제국 시대에 동서교류가 가장 활발했다는 것이 이를 증언한다.

몽골 제국의 출현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안에 포함된 여러 민족의 역사도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제국 각지를 연결하는 역참이 정비되고 교통로의 안전이 확보되면서 동서 간에 대대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실크로드는 이제 몽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해상 무역로 개척에 매진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순환하는 바닷길을 육상 교역망과 연결했다. 그 결과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대규모 경제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사람과 물건, 문화와 정보, 종교와 사상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했다. 학자들은 이를 흔히 팍스 몽골리카(몽골에 의한 평화)라고 부른다.

이처럼 몽골인들은 새로운 세계사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변화의 씨앗은 15세기부터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다. 15세기, 이는 서구인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흔히 대항해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이다. 신대륙 발견으로 상징되는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서구의 우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동서교역의 패턴을 일변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다면 서구 세계가 해상으로 진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는 20세기 초기까지 지속되었던 유라시아 대륙 동서의 대국, 즉 청나라와 오스만 제국이 왜 바다로 진출하지 않고 내륙으로 눈을 돌렸는지, 그 결과가 그 후 어떻게 세계사의 분기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서구인들이 바다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몽골 제국과 그 계승국가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중엽에 걸쳐 일어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로 개척의 필요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아시아 나라들(명, 청, 오스만제국)은 내륙 지향적이었으며, 그것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를 기회와 위협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화와 콜럼부스의 항해는 모두 몽골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계승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



몽골 제국 시대 역참 이용자가 소지한
파이자牌子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그러한 차이가 유럽과 중국의 항해술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륙과 해양에 대한 중국과 유럽인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럽인에게 해양 진출은 새로운 부의 창출을 보증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더 긴박한 것은 내륙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유럽이 해양 지향적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내륙 지향적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몽골 지배의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서유럽과 그 지배를 받은 유라시아의 내륙 국가(명, 청, 오스만 제국)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바다에 대한 인식의 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구인이 바다로 진출하여 통상 무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유라시아 전역을 거대한 통상권으로 일체화시킨 몽골 제국의 유산을 상속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 제국의 출현은 유럽의 근대를 여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실크로드, 유목민, 몽골 제국이라는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 얼핏 보면 별개로 보이는 주제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대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사 전개에 미친 유목민의 역사적 역할과 몽골 제국의 세계사적 의의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전시후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갤러리 개관 기념 작품전 ‘돈황인상’展 개최

2011. 12. 15 – 2012. 1. 15 민연갤러리

2011년 12월 15일 11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갤러리 개관 기념 특별전, ‘돈황인상’전 개막식이 열렸다. ‘돈황인상’전은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IDP SEOUL이 공동 주관 하며, 동덕여대 회화과 학생들이 출품한 돈황 관련 작품 16점, 서용 교수의 작품 1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마침 IDP SEOUL을 방문한 한스 울리히 자이트 독일 대사를 비롯하여 동덕여대 회화과의 서용 교수, 홍순주 교수 등 귀빈들과 동덕여대 회화과 학생들 및 본원 소속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민연 갤러리의 개관과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였다. 귀빈들의 테이프커팅식 뒤에는 최용철 원장의 축사와 서용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든 손님들 모두 다과를 곁들이며 편안한 분위기로 전시를 감상하였다.

이번 작품전을 기획한 서용 교수는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에서 벽화를 전공하였으며, 란저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벽화모사화 분야의 일인자인 그는 이번 전시에서 61굴 약사 변상도를 출품하였는데, 이것은 가로 270cm에 세로 250cm의 대작으로 돈황 벽화의 고대 불교 미술 양식이 가진 전통과 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것이다.

학술심포지엄 기념 작품전 ‘돈황인상’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민연갤러리에 전시되며, 이후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개관식에 참석한 자이트 대사, 최용철 민연 원장, 서용 교수, 홍순주 교수



서용 교수가 출품한 약사변상도



IDP SEOUL에 방문한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와의 인터뷰



2011년 12월 15일, IDP SEOUL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다.

바로 한스 울리히 자이트(H.E. Hans-Ulrich Zeit) 주한독일대사. 자이트 대사는 한국문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중앙아시아학 연구자이자 아프가니스탄 연구소 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자이트 대사는 '돈황인상'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작품들을 관람하고, 최용철 원장과 좌담을 나눴다. 이후 IDP SEOUL 센터로 자리를 옮겨 인터뷰에 응했다. 자이트 대사는 방문 내내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신 대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편집자)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홍윤희 우선 오늘 저희 IDP SEOUL에 방문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방문하시겠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랐고 기쁩니다.

H.E. Hans-Ulrich Zeit 저도 IDP SEOUL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혜 2010년 12월 국제돈황프로젝트 서울센터를 출범할 당시, IDP 대표 수잔 횃필드 박사를 통해 대사님께서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독일 대사관의 알렉산더 노박 씨가 참석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Seidt 서울은 상당히 바쁜 곳이고,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연구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혜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카불에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역임하셨죠? 또한 스위스 아프가니스탄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중앙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나 과정이 궁금합니다.

Seidt 제가 중앙아시아와 인연을 맺은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소련 연방 말기에 모스크바에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중앙아시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지요.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말입니다. 그 후 주 타지키스탄 독일 대사관 대표로 두산베(타지키스탄의 수도)에 몇 달간 머물었는데, 두산베는 동아시아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두산베 박물관에는 거대한 와불을 소장하고 있지요.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카블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 독일과 중앙아시아와의 인연도 상당히 깊다고 들었습니다만.

Seidt 그렇습니다. 독일은 예전부터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에 중앙아시아를 탐험한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있지요. 그는 1829년, 1830년에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책을 펴냈고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를린의 지리학자인 칼 리터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답사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문헌과 문서의 연구에 힘을 쏟았고 중앙아시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출간하였습니다. (근대지리학은 18~19세기에 독일에서 확립되어 A. 훔볼트는 자연지리학을, K. 리터는 인문지리학의 기초를 쌓았다. 칼 리터는 최초의 지리학 강좌 교수이기도 하다.)

그 다음이 지리학자로 유명한 페르디난드 폰 리히트호펜입니다. 그는 둔황을 비롯하여 중국 각지를 광범위하게 답사했습니다. 그는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하지만 그는 '실크로드'라고 할 때 복수형을



홍윤희 (IDP SEOUL 간사)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비단길이 아니라, 시스템적 차원에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수많은 교역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투루판에서 활동한 알베르트 폰 르콕도 있지요.

그 이후로도 독일은 항상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통일 이후에 독일고고학연구소에 유라시아부를 설치하였고, 이 연구소는 독일 외무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는 베를린의 주요 연구 기관으로서, 독일 외무부의 후원을 받아 기금을 충당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라시아는 독일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고, 제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발견들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 예를 들어 어떤 발견들이 가능할까요?

Seidt 1953년에 스웨덴의 헝고(Hangö) 지역에서 작은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웨덴연구소와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쪽에 문의해서 헝고의 불상을 볼 수 있겠죠. 또한 옛 동독 지역이었던 발틱 해 연안에서 2-3년 전부터 많은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크로드에서 온 대량의 아라비아 동전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르는 길을 이용하여, 100-200여개에 이르는 아라비아 동전이 독일 땅에서 발견된 것이죠. 또한 그 당시 한국 승려들은 서쪽으로 여행을 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헝고의 불상 역시 인도에서 유래한 것이 북쪽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 집중한다면 앞으로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 대사님은 주로 고고학적 발견에 관심을 두고 계신 건가요?

Seidt 저는 주로 맥락 속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국제문화유산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독일의 투루판 프로젝트에도 중요합니다. 이 둘은 매우 국제적이고 세계화된 사업이자 학제간 연구이지요. 흥선생님이 연구하시는 신화 분야를 예로 든다면, 문학적 전통을 결합하는 민연의 작업이 심층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IDP는 전통적 연구 영역을 넘어서고 고학, 예술사, 문학사, 신화 등을 넘나들며, 여러 다른 국가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인 것



센터에서 자이트 대사와 함께
(왼쪽부터 홍윤희 간사, 자이트 대사, 최용철 민연원장, 박선영 독일대사관 과학담당관)

이죠. 거기에 IDP 활동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 대사님께서 이사로 계신 스위스 아프가니스탄연구소와 비블리오테카 아프가니카(Bibliotheca Afghanica)의 활동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eidt 스위스 아프가니스탄 연구소는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아직 평온한 개발도상국으로, 독일계 스위스인, 오스트리아어를 사용하는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했습니다. 즉 유럽의 독일어 사용권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셈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두 곳에 연구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보훔대학에 설립되었고, 이곳은 주로 개발학에 중점을 둔 곳입니다. 반면에 스위스 아프가니스탄 연구소는 민연처럼 역사, 고고학, 문화사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주된 관심사는 역사와 문화전통에 있었고, 또한 자료 수집을 통해 아카이브를 구성했습니다. 예컨대 독일인 학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소장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그렇게 하여 비블리오테카 아프가니카라는 이름의 도서관이 조성되었고, 아카이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가 된 이후로는 포토테카 아프가니카(Phototheca Afghanica)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9세기부터의 옛 사진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편집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도서관, 포토테카 등의 자료는 학생들, 연구자, 그리고 주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박사 과정 연구자들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연구소 내에서 연구하는 동안 숙식이 가능하도록 일부 공간을 보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뜻 깊은 일에 제가 이사로 선출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스위스인 5명, 독일



인 2명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독일인 두 명중에 하나이죠.

이재 2002년에 베를린-카불-모스크바: 오스카 폰 니더마이어와 독일의 지정학(Berlin-Kabul-Moscow: Oskar von Niedermayer and Germany's Geopolicy)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셨죠. 아랍어로도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번역본이 없어 국내 독자들이 이 책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데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Seidt 이 책은 20세기 초 독일의 지정학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지리학이 제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20세기 초반 독일 연구 방식의 한 가지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매우 관심을 끄는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 및 연구를 제국주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우리가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 해서도 안 되는 방식이지요.

이재 부제에 있는 오스카 폰 니더마이어(Oskar von Niedermayer)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였던 지리학자라고 들었습니다만.

Seidt 그렇습니다. 니더마이어는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 연구자로,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하였습니다. 그가 1924년에 출간한 주요 저서(아프가니스탄)는 풍부한 사진을 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역사, 인류학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 및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했는데, 투루판학에 알베르트 폰 르콕이 있었다면 아프가니스탄학에 오스카 폰 니더마이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 독일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를 넘어 보다 멀리 동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로는 중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추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신라가 당시 실크로드 네트워크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제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있죠.

이재 육로보다 해로가 더 주요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Seidt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신화에 있어서는, 구법승들 대다수가 육로를 많이 사용하였고, 해초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이재 네. 인도로 갈 때는 해로를 이용하였지만 둔황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육로를 통해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대사님의 경험과 이 분야에서의 활

동을 바탕으로, 실크로드학을 연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Seidt 저는 세기에 걸친 세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원후 1300년대에서 통일신라 말기나 몽고 침입까지의 기간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동서 문화에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 제도와 서양의 종교 제도를 보면, 한쪽은 불교이고 다른 쪽은 기독교 위주이지만 승려의 생활방식과 수녀의 생활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또한 신화 연구도 중요할 것입니다. 서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신화나 여러 신들에 매우 집중하였죠. 연구할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함께 협력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작업해나가야 여러 다른 분야의 연구를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제적인 학제간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이재 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족문화연구원 IDP에 참여하게 된 것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학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였습니다. 여러 국가, 민족, 지역들 간의 소통을 위해 문화적 교류와 '길'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몸담아 오셨으니, 앞으로도 대사님의 경험과 지혜를 저희 IDP SEOUL 센터와 저희 독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대사님의 2012년 새해 희망을 여쭙 봐도 될까요?

Seidt 제가 바로 용띠입니다. 2012년 임진년은 용의 해이죠. 그래서 매우 좋은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웃음)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해가 되길 바라며, 한국과 독일 양국 간에, 특히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박선영 씨가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의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독일과 한국의 연구 기관 간의 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문화연구원과 유럽의 파트너들 간에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베를린에도 투루판 프로젝트나 여러 대학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이재 오늘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과학아카데미에서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문화교류」 발표

최용철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필자는 지난 12월 1-2일 사이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없었던 필자로서는 최근 둔황학과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피상적으로 살펴본 것이므로 이해가 부족할 것이나, 그래도 첫 여행에서 느낀 바가 적지 않아 간략히 소감을 남기고자 한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중국의 서역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실크로드의 선상에 있으면서 동서 문화 교류의 중개자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19세기 말부터 러시아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스탠은 땅,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나라 이름이 곧 「투르크 사람의 나라」라는 뜻이었다. 서쪽으로 카스피해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나라에 가게 된 것은 순전히 한중양문화교류협회의 이옥련(李玉蓮) 회장의 덕이다. 이 회장은 2005년 이 협회를 창립한 이래 꾸준히 중앙아시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문화 교류에 힘써 왔으며 현지의 주요 인사와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 멀고먼 그곳까지 수없이 오고 가면서 양국의 문화를 이어보려고 노력하는 이 회장의 열정적인 활동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으며 그녀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연락과 통역을 맡아 수행하는 러시아출신의 교포여성 악사나(김전숙)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커 보였다.

필자는 이 협회의 도움으로 사전 입국허가를 받았고, 아슈하바트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국립종합연구기관)의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바하베딘 나기슈벤디와 수피 문학(Bahaveddin Nagyshbendi and Sufi Literature)”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바하베딘 나기슈벤디라는 중세의 위대한 문학과 이슬람 신비주의의 최고 경지에 이른 수피문학에 대한 주제였다. 초대형 강연장에는 정면에 2007년 취임한 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젊은 남녀 학생들의 밴드단이 앞에 나와 국가를 연주하고 모두 기립하여 국가를 불렀다. 학생들의 머리에는 작고 앙증맞게 수놓은 작은 원형 모자가 씌워 있었다. 대체로 이런 회의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축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교육

부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대신 낭독하였고 이어서 주요 각국 발표자의 기초강연이 시작되었다. 기초강연이 끝난 후에는 과학아카데미의 각 연구소 회의장으로 옮겨 조별 분조발표를 시작하였는데 그곳에도 일정수의 청중이 대기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전임 대통령 때 예산 절약을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2009년 비로소 다시 부활하여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는 상태라고 했다. 연구소장이나 일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향후 발전을 기대할 만했다.

필자는 제2분과 발표장으로 배정된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문화교류의 역사」(The Significance of Cross-Cultural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of Central Asia and Korea)에 관해 소개하면서 향후 이에 관해 쌍방의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청중들의 회의 참관태도는 상당히 진지하고 좋았다. 발표 때마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관련성이 보이는 신라 고분의 왕관과 유리병, 왕릉 앞의 서역인 석상, 둔황과 아프리카시암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조우관(鳥羽冠), 일찍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를 찾아가 불경을 구한 후에 이곳을 거쳐 둔황으로 돌아간 신라고승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발표의 기회에 우리 민연에 설립된 국제둔황프로젝트(IDP)서울센터의 현황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필자의 발표내용이 비록 전체적인 회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실크로드 선상의 양쪽 끝자락에 있는 두 나라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과학아카데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과거의 실크로드를 오늘날 새롭게 재현하려는 뜻에서 「가상 실크 하이웨이」(Virtual Silk Highway)프로젝트를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실크로드 노선을 찾아보면 중국의 둔황과 서역을 지나 바로 이 나라의 중앙을 거쳐서 이란과 터키로 이어지게 된다. 이 나라의 중앙에 있는 Mary지역은 과거 당나라 때는 목록성(木鹿城)이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중국인 교수가 귀뜸해 주었다. 필자의 발표 후에 현지인 한 사람이 따로 찾아왔는데 한국의 TV프로를 통해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았다고 하면서 ‘伽倻 金首露王(가야의 김수로왕)’이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어로 충분히 표현할 줄은 몰랐지만 자신이 본래 김해 김 씨의 후예임을 말하려는 듯 했다. 시간이 넉넉했으면 현지의 고려인들이 사는 곳을 찾아



과학아카데미 고문헌연구소와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옥련 회장

가 보았을 텐데, 아쉽게도 기회가 되지 않았다.

오전의 전체 발표에서 강연을 한 사람 중에 중국 중앙민족대학으로부터 온 교수가 있어서 중국어로 잠시 소통을 하였다. 직접 유창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언어로 발표를 하였기에 궁금하여 물어보니 신장(新疆) 지역의 위구르족으로서 전에 한어교사로 얼마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두 언어가 모두 알타이어 계통으로 불과 수개월만 배우면 능숙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함께 참가한 터키 학자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양국이 다를 바 없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쓴다고 단언했다. 러시아 체제하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였으나(약사나 씨도 러시아로 소통), 현재는 투르크멘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학생들은 이제 굳이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로마자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과 같은 어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공식명칭을 아메리카합중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United States of America(USA)를 옮긴 말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도 USA를 바꿔서 ABS로 쓰고 있었는데 즉 아메리카(Amerikan)의 합쳐진(Birleshen) 나라들(Shtatlar)의 의미로 쓰는 것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의 경우도, 영어로는 Republic of Turkmenistan라고 하지만, 현지의 말로는 순서를 뒤바꿔서 Türkmenistan Jumhuriyāti으로 말하고 있으니 우리와 어순이 일치한다. 중국이나 인도를 지칭하는 말도 각각 Hitay, Hindistan 등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중국 요나라 때의 거란(契丹)이란 말이 러시아에 Kitay로 전해지고 이 말이 변하여 Hitay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을 지칭하는 말은 러시아어를 그대로 받아서 Koreya였다. 인종으로 보면 우리와 비슷한 동양인의 모습도 보이고, 러시아인이나 아랍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도 함께 보여 이미 많이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종교는 이슬람으로 통일되어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문화적 교류와 비교의 가능성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슬람국가였으므로 공식적인 식사 때는 함께 기도를 해야 했는데 필자로서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아 경건하게 식사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예배의 진행자는 마이크로 먼저 경전을 암송하고 난 뒤에 오늘의 국제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도문을 읽었다. 마지막 대목에서는 다들 두 손을 벌려 앞으로 내밀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함께 따라서 했다. 어느 종교든 그 자체로서는 경건하기 이를 데 없다.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 다 같이 행동을 멈추고 간단한 기도를 하였다.

저녁에는 새롭게 발전해가는 수도 아슈하바트의 야경을 볼 수

있었다. 가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이 나라에서는 수도의 거리나 공원에 내온사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공원의 중앙에는 여러 마리의 말을 동상으로 세워놓고 조명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른바 중국에서도 이름 높은 서역의 말(汗血馬)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삼국지」에서 동탁이 여포에게 선물했던 적토마가 바로 서역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몽골의 말과는 달리 허우대가 크고 잘 달렸으므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좋아했다. 적토마는 조조가 취하였다가 관우에게 주었는데 관우가 죽자 먹기를 거부하고 함께 죽었다고 소설에서 쓰고 있다. 공원입구에서 두 쌍의 신혼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밤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우리와 만났다. 축하한다고 외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세상의 젊은이는 어디에서나 이처럼 윤택하고 활달했다.

회의 둘째 날에는 이옥련 회장과 함께 제3분과 발표장으로 배정된 고문헌연구소를 찾아가 한중양아문화교류협회와 국립과학아카데미 고문헌연구소간의 학술교류 협정식에 참석하였다. 이 회장은 특별히 힘들게 챙겨간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이수로프 소장과 함께 서명을 마친 후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했다.

공항이나 시내에서 보이는 노란 택시가 있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수입된 아반떼 자동차였다. 북경의 택시도 현대 엘란트라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부심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이 나라의 가스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탈황설비(유황성분을 제거하는 장치) 작업은 한국의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는데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4개월 근무를 끝내고 2주 휴가를 얻어 귀국하는 근로자들을 공항에서 반갑게 만났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이미 중앙아시아의 오지에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우선 러시아 통역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현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민족과 언어를 이해하고 과거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인문학적 바람은 결국 오늘을 사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우선 믿음과 이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어디든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해의학자들과 함께 참석 중인 한국 참가자



공동 학술심포지엄

“한국에서 문명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

IDP SEOUL이 출범한 지 약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17일, 민족문화연구원 강당에서 (사)한국문명교류연구소(이사장 김정남), 한국돈황학회(회장 서용), IDP SEOUL 공동주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에서의 문명교류연구에 관한 성과를 추적하고, 그 학문적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서용 한국돈황학회 회장의 개회사, 장석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상임이사의 축사, 최용철 민족문화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그 막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기념행사

사회: 김현주 / 한국외대

기조강연1: 중국에서의 돈황·투르판 연구의 현황
(鄭炳林 / 蘭州大學 歷史研究所 所長)

기조강연2: 패치워크 문명론 (황태연 / 동국대)

제1부 주제발표 “문명교류에 관한 제 학문분야의 연구”

사회: 차광호 / 한국문명교류연구소

한·일 교류연구에 관한 회고와 전망 (연민수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 교류연구에 관한 회고와 전망 (서영수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한·이슬람 교류연구에 관한 회고와 전망 (김정위 / 한국외대)

한·몽고 교류연구에 관한 회고와 전망 (주채혁 / 국제몽골연구협회)

실크로드 공연예술 교류에 관한 회고와 전망 (박진태 / 대구대)

한국 복식 교류사 연구에 관한 회고와 전망 (김용문 / 중앙아시아학회)

실크로드 미술 교류 연구에 관한 회고와 전망 (권영필 / 상지대)

제2부 종합토론 “문명교류, 통섭과 심화를 위한 학제적 모색”

사회: 전홍철 / 우석대

좌장: 정수일 /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종합토론



저녁만찬

이번 심포지엄은 학제적으로 분산된 ‘문명’ 및 ‘교류’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결집시키고, 통섭과 심화를 위한 학제적 모색을 목표로 3개 기관이 함께 공동주최하게 되었고, 또한 (사)한국문명교류연구소의 창립 제3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학술행사 후에는 박성하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축하행사 및 만찬이 열렸고, 한국음악 6인조 밴드 고래야(Coreyah)의 축하공연으로 더욱 흥취가 고조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민연갤러리에서 열린 동덕여대 회화과의 ‘돈황인상’展을 비롯하여 쿠차가무단 공연 동영상(고려대 전경옥 교수 제공) 상영 등으로 학술과 문화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했다. 



고려대 박물관과 IDP SEOUL이 함께한 제19회 문화강좌

IDP SEOUL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바로 연구, 국제협력, 그리고 대중화이다. 그 중에서도 실�크로드 학의 대중화 측면은 출범 이후 IDP SEOUL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이기도 했다. 고려대박물관과 연계하여 열린 제 19회 문화강좌 “실�크로드 - 길 위의 인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IDP가 국내 대중과 만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강좌는 본원의 문화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우응순 선생님이 박물관과 다리를 놓아 주시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200명이 넘는 수강생이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을 꽉 채운 가운데 내내 흥미롭고 열띤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과 신라실 단체관람이 이루어져, 강의 때 사진으로만 접하던 관련 유물들을 직접 관람하고 설명을 들을 기회도 제공되었다.

개강일인 10월 5일에는 최용철 민연 원장의 환영사와 홍윤희 간사의 IDP 소개 및 홈페이지 이용법 설명회에 이어 IDP SEOUL 자문위원장인 권영필 상지대 초빙교수의 “실�크로드 역사와 미술”로 첫 강의를 열었다. 권영필 교수는 ‘세계사 속의 실�크로드, 실�크로드 미술의 중심으로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 동쪽에 핀 실�크로드의 꽃으로서 신라미술’ 등에 관한 강의로 앞으로 이어질 강의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2강은 한국외대 이평래 교수의 “실�크로드와 몽골”에 대한 강의였다. 이 강의에서 이평래 교수는 ‘육상과 해상을 막론하고 몽골 제국 시대에 동서교류가 가장 활발했으며, 실�크로드 교역의 활성화에 북방 유목민이 절대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풍부한 사진자료와 매끄러운 강의 진행으로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강의였다.

3강은 이주형 서울대 교수의 “실�크로드와 간다라미술” 강의가 이어졌다. 이주형 교수는 ‘박트리아와 쿠산조의 문화, 간다라의 불교미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우 정밀하면서도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하였다. 박트리아, 쿠산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출토 화폐들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물론, ‘간다라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인도 본토의 상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 대한 강조도 무척 흥미로웠다.

4강을 담당한 오윤희 전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은 “실�크로드와 불교의 기록문화”라는 제목으로 ‘대장경-속장경에 포함된 실�크로드 관련 자료의 종류와 성격, 역경목록을 통해 본 실�크로드, 특히 역경목록의 정수, 「개원석교록」과 구마라집의 사례, 불전 번역의 시기, 우리나라 학승의 활약’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불전 번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출신들의 활약이나 해양실�크로드에서 한반도의 역할에 대한 열정적 강의가 돋보인 시간이었다.

5강 “실�크로드와 동아시아의 전통연희”에 대해 강의한 전경옥 고려대 교수는 ‘산악·백희 계통의 연희들 가운데 원래부터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종목들도 있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역으로 유입된 종목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종목들은 ‘한·중·일 각국에서 자국의 연희로 변용, 발전, 재창조되어 독자적인 공연문화를 형성’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왕의 남자>에 나오는 산악·백희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독자성 등을 논하기도 하고 실제 가락을 시연하기도 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6강은 최용철 민족문화연구원 원장의 “문학의 실�크로드” 강의였다. 본 강의에서 최용철 원장은 우선 ‘실�크로드가 사람과 문물, 문화가 오고가던 세계적 네트워크’였으며 그 오고감 속에 ‘이야기’가 피어난다고 강조하고, ‘근대 중국의 삼대 현학(顯學) 중 하나로서 둔황학의 중요성, 중국 신화와 전설 속의 서역, 천축국을 다녀온 취경 이야기, 둔황 변문의 불교고사, 역사고사, 화본소설’ 등에 관하여 특유의 입담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수강생들을 두 시간 내내 아름다운 실�크로드의 이야기 속 여행으로 안내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단체관람으로 이루어진 제7강에 이어 11월 23일은 김선자 연세대 교수의 “실�크로드와 신화”가 이어졌다. 국내 대표적 중국신화학자인 김선자 교수는 ‘초록, 푸른색,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빛깔을 테마로 ‘모스크의 초록지붕, 호양나무의 초록’, ‘푸른색 대문과 창문, 텅그리와 푸른늑대’ ‘빛이 어둠을 이기는 이야기’ 등에 관해 실�크로드의 신

화 속에서 그 근원을 찾아나갔다. 또한 김선자 교수는 실크로드가 “여전히 사람을 꿈꾸게 하는,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길”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제9강은 이진원 한예종 교수의 “실크로드와 음악”에 관한 강의였다. 이진원 교수는 주로 실크로드의 음악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역악의 영향과 오늘날 한국 음악에 남아 있는 고대 실크로드 음악의 흔적, 고대 실크로드 음악 복원 사업’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고구려악에 사용된 비파류, 피리류, 요고 등 악기에 대한 설명이나, 쿠차의 사자무와 북청 사자놀음의 비교, 신강성의 대곡 마감과 한국의 거문고사조와의 비교 및 강사의 시연과 음악감상 등 다채로운 강의로 음악이론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마지막 강의는 김용문 강릉원주대 교수가 맡았다. 현재 중앙아시아학회 회장이기도 한 김용문 교수는 “실크로드의 복식”에 대한 이 강의에서 ‘신강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미라가 착용한 복식들이 복식 연구 뿐 아니라 고대민속, 사회풍속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자와 헤어스타일, 의복, 신발과 부속품으로 나누어 실크로드 복식과 출토지물에 나타난 동서 문화 교류의 면면을 살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수차례 실크로드를 답사한 경험담과 생생한 사진 자료들을 통한 강의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수강생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져 더욱 특별한 중강이 되었다.

이번 강의는 이처럼 각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실크로드의 이모저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특히 매시간 강사분들이 직접 실크로드를 답사하며 찍어온 사진들을 통해 매주 상상 속 실크로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수강생들의 열기였다. 수강생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날씨도 들쭉날쭉했던 지난 가을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그 넓은 강의실을 열기로 꼭 채우시는 것을 보며 앞으로 한국내에서 실크로드학을 대중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이번 강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내 수고해주신 고려대박물관의 서명일 학예사님과, 박진홍 조교(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과정), 그리고 IDP SEOUL의 이슬기 연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홍윤희 (IDP SEOUL 간사)



문화강좌가 진행중인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

2012년 IDP SEOUL 상반기 행사

IDP SEOUL 초청강연회

일 시 3월 26일 오후 3시~6시

장 소 민족문화연구원 회의실

제1강연

이케다 마사노리 (池田將則/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及法師 撰述『大義章』(北京8392)과 隋 仁壽元年(601) 筆寫『攝論章』卷第一(Stein 2048): 明及과 智凝

제2강연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신앙의 만개지, 돈황





실크로드의 세 갈래 길

‘2011 제6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행사 참관기

박종우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행사 후 한마당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번째 이슬기, 왼쪽에서 세번째 박종우연구원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서기 700년 실크로드 교역권을 장악했던 돌궐의 명장 퉁유국의 비문 중에 있는 말이다. 정체되지 않는 부단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말은 13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그동안 학계가 일반 대중과 만나는 일을 금기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무분별한 대중화로 인해 정통 학문의 순수성이 손상될 것을 우려할 테지만, 정보화 시대에 지식 대중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앞에 늘 목말라하고 있다.

본 연구원의 국제둔황프로젝트 서울센터가 ‘2011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열었던 실크로드 전시관 및 체험관은 바로 학술 연구 중심에서 일반 대중 소통으로 연구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연구원의 뜻 깊은 시도였다.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동물원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수십 개의 전북지역 평생교육 관련 단체들의 연합행사로서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이 참여하는 대형 축제 한마당이였다.

필자는 본 연구원의 문화학교 소속으로서 이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행사 주최 측의 요청으로 부족한 일손을 거들게 되었다. 이번에 참여하기 전까지 사실 실크로드하면 비단길이며 사막을 횡단하여 동서 문물의 교역이 이루어진 곳 정도의 역사 상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겨보다가 실크로드는 사막길뿐만 아니라 초원길과 바닷길도 있었으며, 그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당시 사람들도 새로운 것의 소통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두 개의 부스를 마련하였는데 우선 실크로드 전시관에는 벽면에 사진 10점과 실크로드 주요 도시 및 전시 사진들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학습용 지도를 설치하고, 전시관 중앙에 전용 슬라이드를 두어 보다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전시에 활용된 사진들은 모두 센터 소장 자료로 둔황 4점, 아프라시아 4점, 서하 유적 2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음

악과 영상이 결합된 약 15분 분량의 슬라이드 쇼는 실크로드 답사 사진, 국내 소장 유물, 한국과 실크로드와의 관련 유물 등을 담았다. 센터 간사를 맡고 있는 홍윤희 연구교수와 이슬기 연구원이 번갈아가며 친절히 해설을 더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관에서는 필자가 시민 자원봉사자 네 분과 함께 체험 및 놀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관람객들이 직접 모래를 밟고 만지며 사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부스 앞에 대형모래판을 설치하였고, 국내 소장 유물들의 퍼즐 맞추기, 천불도 스탬프 찍기 및 소원 적어 붙이기 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았던 점이다. 동물원에서 개최되어 행사 참관과 더불어 가족 나들이를 겸할 수 있었고, 행사 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기대 이상의 인원이 다양한 부스 행사를 체험하였다.

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행사장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주최 측의 관계자에게 궁금했던 호응도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마침 각 행사장을 참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를 묻는 설문도 있었는데, 센터의 실크로드 전시관과 체험관이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부스별 관람 인원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뻑뻑한 일정에 지친 심신의 피로가 한순간 가시는 순간이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크로드라는 주제가 일반인에게 다소 딱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결국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무엇보다 센터의 참신한 기획과 꼼꼼한 준비의 공이 가장 크지만, 더불어 주최인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의 열정적 참여와 전주 시민 자원봉사단의 자발적 협조가 없었더라면 이루기 힘들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옛날 실크로드의 세 갈래 길처럼 학(學), 관(官), 민(民)의 든든한 세 갈래의 협력체계가 정체되지 않는 상호 소통에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중에게 보다 다가가는 본 연구원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본다. 

‘대(大)순환로’: 불교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The Great Circle’: A New Approach to Buddhist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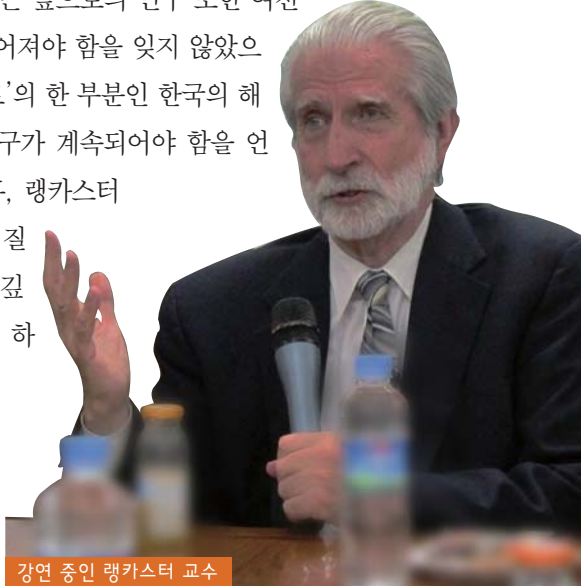
정조은 (국제한국학센터 연구원)

2011년 9월 26일 IDP SEOUL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바로 민족문화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해외명사 초청강연회를 위해 고려대학교를 방문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UC Berkeley)였다. 한국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로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랭카스터 교수는 민족문화연구원과 IDP가 인연을 맺도록 다리를 놓아 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강연회 후 최용철 원장과 함께 흥윤희 IDP SEOUL 간사, 심태식 국제협력팀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IDP SEOUL의 발전방향에 대한 좌담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랭카스터 교수는 분과를 초월한 협력의 중요성과 신기술을 도입한 자료 접근과 관리 방식의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아래는 랭카스터 교수의 강연회에 대해 국제한국학센터(ICKS) 정조은 연구원이 정리한 기사이다. (편집자)

2011년 9월 26일 국제한국학센터는 해외명사초청 인문강연의 세 번째 연사로 불교 정전의 전문가이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분교의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 명예교수를 초청하였다. 랭카스터 교수는 히말라야에 있는 수도원을 답사하는 등,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교 경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양질의 연구 자료를 전 세계 학자들이 전자 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전자문화도협회(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의 창설자이기도 하다. 본 강연에서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의 전파에 대한 새로운 가설과 그에 대한 증거 일부를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는 데 ‘실크로드’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지만, 랭카스터 교수는 실크로드가 지중해와 동아시아의 연결로라는 기본서사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와 분석을 제시하였다. 상업루트인 실크로드는 현재까지 큰 이의 없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달된 길이자 지중해와 동아시아의 연결로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랭카스터 교수는 몇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랭카스터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로마의 금화이다. 로마는 아시아에서 온 상품들에 대한 대가로 금화를 지불하였는데, 아시아로 건너간 금화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사라진 것들이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불교사에 따르면 남인도 특히 타밀 나두와 그곳의 강력한 시바교도의 관습은 불교사에 있어 그다지 중요치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대 남인도 지역을 좀 더 살펴보면, 불교 건

축물과 그림, 비문, 탑의 잔해 등이 다양하게 발견된다. 랭카스터 교수는 이러한 유적지들이 내륙으로 가는 무역 루트보다도 항구 주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또한 랭카스터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남인도의 특정지역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고대 항구에서 많은 양의 로마 금화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랭카스터 교수는 ‘대순환로’라는 새로운 루트를 명명한다. ‘대순환로’는 무역루트, 항구, 오아시스, 불교유적 등 인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안다만해 연안, 스리랑카를 둘러싸고 있다. 불교의 전파를 ‘대순환로’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사가 전개된다.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번 강연에서 랭카스터 교수는 ‘대순환로’를 따라 확장했을 경우의 루트를 간략히 소개했다. 물론 그는 앞으로의 연구 또한 여전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않았으며, 특히 ‘대순환로’의 한 부분인 한국의 해양루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강연 후, 랭카스터 교수는 청중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뜻 깊은 시간을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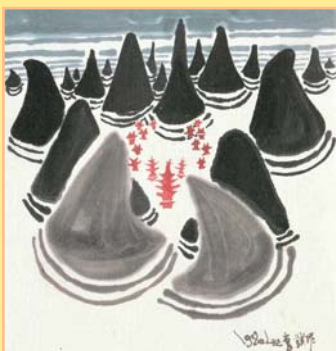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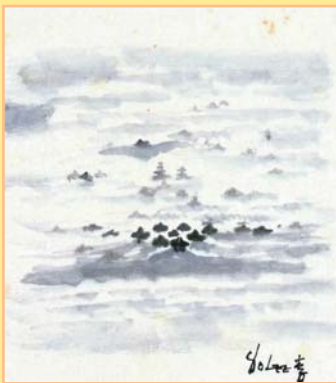


전시후기

Eyes of Leeungno & Marcopolo

이응노와 마르코폴로의 시선

2011. 7. 13 - 10. 30 대전이응노미술관




9월의 맑은 날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행사 참석차 대전에 갔다가 이응노미술관으로 향했다. 대전시립미술관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이응노미술관은 고암 이응노(1904-1989)의 대표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프랑스의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설계한 멋진 건물로도 무척 매력적인 곳이어서 대전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들르곤 했다. 이 날도 동행한 선생님께 좋은 구경 시켜드리겠다고, 상설전이 무척 멋지다고 은근히 뽐내가며 들렀던 차였다. 하지만 전시장을 들어서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문자추상> 같은 고암의 대표작들이 아니었다.

동그란 아치형 다리 아래로 물이 흐르는 베네치아에 사는 한 소년이 여행길에 나섰다

전시는 이 문구로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실크로드>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의 “Distant Green Valley”가 흘러나오는 전시장 가득, 제목 없는 고암의 수묵산수들이 어딘가 낯선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응노와 마르코폴로의 시선> 전시였다.

1980년 《동방견문록》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던 한 프랑스인 작가가, 당시 파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고암을 찾아와 자신의 책에 실릴 삽화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고암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무려 70~80여점에 이르는 풍경 작품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집필가의 사정으로 책은 출판되지 못했고, 고암의 삽화들 역시 세상에 선보일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 전시는 바로 그 작품들이 대중에게 최초로 선보인 전시였다. 우리가 흔히 접하던 고암의 작품들과는 상당히 다른 신비한 이미지의 이 풍경작품들은 이응노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내용을 듣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한다.

한 점 한 점이 모두 다른 풍경을 담고 있다. 무지갯빛 하늘 아래 오아시스 물길을 걷고 있는 행상, 산 아래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들, 굽이굽이 첩첩산중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만다라, 우뚝우뚝 솟은 산들 사이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빨간 집들, 가도 가도 닿을 것 같지 않은 푸른빛 신기루 마을까지. 고암은 이렇게 13세기 베네치아 소년이 거쳐 간 길을 그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있었다. 전시장의 끝에는 다음의 문구가 방문객들을 전송하고 있다. 

새벽은 어둡고 서늘하다. 그러나 희망적이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새벽을 품은 이는 언제나 그 모습이 희망차다.

-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중에서

전시후기



불교중앙박물관 전경

• 초조대장경 천 년의 해 기념 특별전 •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

2011. 9. 21 - 11. 12 불교중앙박물관




초조대장경 판각 이래 천 년을 기념한 특별전시회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이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대장경이란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가 처음 중국으로 전해진 이래 아시아 각국에서 불교의 경전과 문헌들을 집대성한 지식의 총람이다. 경經 · 율律 · 론論의 삼장(三藏)을 비롯하여 당시의 모든 불교 문헌들을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최초의 대장경은 북송(北宋)의 개보대장경이었다. 그 후로 중국, 한국, 일본 및 동남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전파된 각 지역에서는 불교 지식을 공유하며 각각 대장경을 조성하여, 시대에 알맞게 목록이나 구성, 책의 형태 등을 변화시켜 갔다.

전시장은 은은한 조명 아래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였다. 군데군데 배치된 시청각물의 영상 음악이 전시장 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전시는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워 갈 수 있도록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관람객의 연령대도 다양하여, 대장경 제작 과정에 관한 동영상을 경건한 태도로 앉아서 감상하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있는가 하면 전시 설명문을 일일이 진지하게 받아 적는 젊은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의 흥미와 이

해를 돕기 위해 소개글 중간 중간에 전시물 사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끔 특별 제작한 교육용 팸플렛이 눈에 띄었다.

전시를 따라서 차분히 둘러보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대장경이 조성되었고 그중 고려대장경의 특색과 더불어 추후에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불교 문헌들이 주로 4-10세기의 필사본인 것에 비하여 고려대장경은 11-13세기의 목판 인쇄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초조대장경의 원류를 찾기 위한 둔황 불전과의 비교 대조 연구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新撰一切經原品次錄)』 및 초조대장경 인쇄본 다수를 비롯하여,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재조대장경 목판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訂別錄)』,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등 국보 7점, 보물 31점이 포함된 총 164점의 고려대장경 관련 유물들이 출품되었으며, 세계 최고(最古)의 불경 인쇄본으로 널리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도 함께 전시되었다. 

이슬기 (IDP SEOUL)



초조본 금강반야바라밀경



묘법연화경 언해 권1



패엽경



목조가섭입상



해외학회소식

“해양실크로드와 세계문명의 발전과정 (海上絲綢之路與世界文明進程)”

2011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사회과학원과 영파시 정부(寧波市政府)에서 주관하고, 절강성문물국(浙江省文物局), 영파박물관(寧波博物館, 중국해양실크로드연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이 중국 영파시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해양 실크로드’ 전문학자 39명이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한국측에서는 (사)한국문명교류연구소의 정수일 소장과 차광호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중국 中山大學 장원친(章文欽)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는 중국 강역사와 해양 실크로드 연구사 검토, 각 지역 해양 실크로드의 교류양상 등이 논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명교류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ice.ac>) 연구소소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시후기

“책으로 신^新 실크로드를 열다”

2011. 10. 1 - 9 파주출판도시

2011년 10월 초, 파주출판도시에서 ‘파주북소리 2011’ 책 축제가 열렸다. 이번에 열린 파주북소리는 아시아 최대 책 축제로 기획되어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과 더불어 ‘책으로 신실크로드를 열다’전이 개최되어 축제기간 내내 방문객들을 맞았다.

‘책으로 신실크로드를 열다’전에서는 헤초, 마르코 폴로, 현장, 마크 오렐 스타인, 장건, 정화 등 6명 여행자의 자취를 좇아 실크로드의 과거와 현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실크로드 곳곳의 사진 전시와 설명은 물론, 우리문화와 실크로드의 관련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 (사)중앙아시아학회에서 제공한 실크로드 관련 개인 소장 도서 전시가 백미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학에 관련된 국내외의 대표적 서적들이 전시되었고, 1920~1924년에 걸쳐 출간된 폴 펠리오(Paul Pelliot)의 『둔황석굴(Les Grottes de Toun-Houang)』(제공 권영필)이나 1906년에 출간된 코즐로프(P. K. Kozlov)의 『몽골과 캄(МОНГОЛИЯ И КАМЪИ)』(제공 김장구) 등의 희귀본들도 제공자의 상세한 설명글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기회였다. 아래는 폴 펠리오의 <둔황석굴>에 대한 권영필 교수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동양학 연구자인 펠리오가 둔황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1908년이었다.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둔황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펠리오는 용의주도하게도 카메라멘을 대동하고 갔기에 490여개의 석굴중에 중요한 것들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둔황석굴에 번호를 매긴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듬해에 파리로 돌아온 펠리오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에 이르러 파리의 유명한 출판사인 폴·고트너를 통해 세계 최초의 둔황석굴 벽화집을 출간할 수 있었다. 비록 흑백으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가 편호(編號)한 번호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 책은 1970년대에 일본과 중국에서 본격적인 도록이 출간될 때까지의 근 반세기 동안 둔황벽화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의 구실을 하였다. 1930년대 파리에서 화가로 활동하던 창슈홍(常書鴻)은 어느날 세느 강변의 도서관에서 펠리오의 둔황도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가 둔황벽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둔황미술에 일생을 헌신코자 귀국(1937)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도록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귀국 후에 둔황 연구원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둔황연구의 대부역할을 하였다. 또한 재미있는 일은 창슈홍이 장따첸(張大千)으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은 것도 바로 이 도록이었다. (이 글의 전재를 허락해주신 권영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IDP SEOUL 출범 및 한국어 웹페이지 개통 2011년 기초연구 인문학분야 우수성과 선정



우수성과 수상자들



우수성과 전시회에서

IDP SEOUL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1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인문학분야 우수성과로 선정되었다. 이에 2011년 9월 22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인증서 수여식 및 특별전시회가 열렸다. 수여식에는 본원의 김선민 HK교수와 IDP SEOUL 홍윤희 간사가 참석하였다. 우수성과 50건 중 7건이 인문학분야이며 IDP SEOUL은 인문학분야 첫 수상자로 단상 위에 올랐다. 특별전시회는 국립과학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 후, 이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KTX 역사 등에서 우수성과 전국 순회전시회를 거쳐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올해 9월까지 상설 전시된다. 온라인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 전시관(md.nrf.re.kr)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제3차 IDP SEOUL 자문위원회 개최

제3차 IDP 자문위원회가 2011년 8월 11일에 민족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영필 위원장, 최용철 본원 원장을 비롯하여 오윤희, 이수용, 이평래, 전인초 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전 돈황학회 회장인 이수용 건국대 명예교수와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최용철 원장의 환영사와 신입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홍윤희 간사의 경과보고 후에 이어진 본 회의에서는 'IDP SEOUL 연구활동 계획과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실크로드학 · 돈황학 사전' 제작에 대한 제안, 실크로드연구소 설립계획, IDP SEOUL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서 오윤희 위원은 "민연이 한국의 지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가고 지탱해 나갈 아이디어, 방향감각, 자원이 중요하며, IDP라는 틀 안에서 한국적인 다이내믹함으로 접근하여 보다 거시적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참여는 동양의 문화를 보는 중국적 · 일본적 시각과도 다른 제 3의 시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아시아를 보는 다른 시각은 선진 학계에 오히려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는 IDP SEOUL이 앞으로 한국의 IDP 센터, 동양의 IDP 센터로 시야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눈에 띄는 새책



高麗大藏經과 敦煌佛敎文獻對照目錄(全2卷)

제①권 敦煌文獻卷子編號 | 제②권 高麗大藏經番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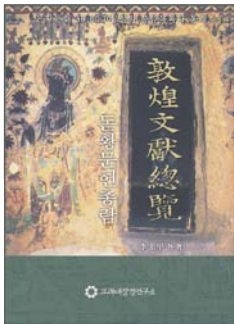
편자 이규갑 외 | 발행일 2011년 7월 15일 | 책정보 전2권 1세트 | 양장본 · 제1권 1,418쪽, 제2권 1,390쪽
발행처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돈황 지역에서 발견된 방대한 양의 고문헌군인 돈황문헌과 대장경 역사에서 표준의 역할을 해온 고려대장경을 개별 사본 및 경전 권차별로 대조하여 돈황사본에 상응되는 고려장 경전의 상세 위치정보 및 차이점과 특이점 등을 밝힌, 고려대장경과 돈황불교문헌의 본격 상세 대조목록이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추진된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교연구 시스템 구축 및 대조연구 사업”의 연구성과물로서 돈황문헌과 고려대장경을 최초로 상세 대조하여 돈황불교문헌의 목록을 제시하고 차이점과 특이점을 조사 기록하였다. 「고려대장경」을 대조 저본으로 하여 「敦煌寶藏」, 「俄藏敦煌文獻」, 「法藏敦煌西域文獻」,

「敦煌遺書最新目錄」 등의 돈황문헌과 목록을 대조한 이 책은 돈황불교사본에 상응되는 고려장 경번호, 신수장 경번호, 돈황사본과 고려대장경의 卷次, 品名, 品次 및 해당 고려대장경의 상세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대조 과정에서 발견된 돈황문헌과 고려대장경 간의 차이점이나 특이점 등의 연구정보를 비교사항으로 기록하였다.

총 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권은 「敦煌遺書最新目錄」에 따라 ‘스타인본’ ‘북경본’ ‘펠리오본’ ‘러시아본’의 권자번호 순서로 배열하고, 제2권은 ‘스타인본’ ‘북경본’ ‘펠리오본’ ‘러시아본’을 각각 고려장 경번호(K번호) 순서로 배열하여 경전별 돈황불교문헌의 검색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敦煌文獻總覽

저자 이규갑 외 | 발행일 2011년 7월 31일 | 책정보 양장본 · 484쪽
발행처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www.sutra.re.kr)

100여 년 전 돈황 지역에서 발견된 방대한 양의 고문헌군인 돈황문헌에 대한 불교, 문학, 경학, 도교, 언어·문자별 분류목록과 통계서이다.

이규갑, 조은수, 김애영, 최종남 등 11인의 분야별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방대한 돈황문헌에 대한 체계적 안내서인 이 책은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교연구 시스템 구축 및 대조연구 사업”(한국연구재단 지원)의 연구성과인 「高麗大藏經과 敦煌佛敎文獻 對照目錄」

을 근거로, 불교와 문학 등 제반 학술분야의 돈황사본들을 개관하고 분류하여 목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론을 제외한 각 부는 개관, 통계, 목록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목록은 불교문헌의 경우에는 경명, 경번호(고려장번호, 대정신수장번호), 돈황사본 번호를 나열하고 해당 사본 수가 많은 경전은 권차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불교 이외의 문헌은 문헌명 다음에 돈황사본 번호를 나열하였다.



돈황 강창문학의 이해

저자 전홍철 | 발행일 2011년 6월 1일 | 책정보 양장본 · 569쪽
발행처 소명출판

한국의 대표적 돈황강창문학 전문가인 전홍철 교수(우석대)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출간된 이 책은 구비연행서 사물로서의 돈황 강창문학이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텍스트의 서사적 특징과 연행 증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돈황 강창문학은 고대 한국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고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강창문학의 형성 경로, 서사 체계, 연행 양상, 소설사적 의

의 등을 서술함으로써 텍스트에 치우치지 않고 입체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강과 창 의 결합 방식, 텍스트 생산자와 향유자, 연행 장소 등에 대한 연구는 돈황 강창문학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며 소비되는 과정을 고찰한 뜻 깊은 시도이다. 이러한 시각과 방법은 앞으로 우리 문학과 의 원형적 관계를 밝히는 단서가 되리라 기대된다.